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

안재원**

1. 들어가는 말
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
3. 옥시링쿠스 문헌들에 대하여
4. 나가는 말

■ 국문요약

이 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역사와 그곳에서 수행된 문헌학의 특징을 살피는 고찰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옛 노래와 이야기, 글과 책을 관리하는 도서관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지식 관리 센터였고, 또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담당하는 젊은 시인들을 교육했던 학교였다. 전자와 관련해서, 글은 현대 고전문헌학자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활약한, 예를 들면 필리타스, 제노도토스, 에라토스토네스, 아리스타르코스의 발견하고 발전시킨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 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자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들과 같은 '주

*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리에서 나의 입장을 각주에 밝혀두었다. 아울러 서양고전문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한국경학학회에서 이 글의 투고와 게재를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글을 『경학』에 투고한 것은 서양고전문학과와 동양고전문헌학의 소통과 대화를 위한 것임을 밝힌다.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numeniu@snu.ac.kr

어진 고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도전 정신과 대결 의식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이는 현대의 고전문헌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3대 관장이었던 칼리마코스가 주도한 새로운 시문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글은 고전문헌학이 한편으로 주어진 전통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실증주의와 보수주의의 노선을 고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고전에 대한 도전 정신과 대결 의식을 중시하는 전통의 학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적으로 모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 시문학에 도전하려 했던 로마의 시문학 전통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글은 현대의 고전문헌학의 교육에서 고전에 대한 도전과 대결을 통해서 새로운 고전을 만들고 창조하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고전문헌학자, 고전문헌학, 아리스타르코스, 칼리마코스, 모방과 경쟁

1. 들어가는 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년)의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Andronikos, 기원전 1세기 활약)였다. 그전까지 기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의 운명에 대한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 기원전 60-서기 24년)의 전언이다.

넬레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 기원전 330-?)의 제자로, 테오프라스토스의 도서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 이집트 왕들에게 책의 수집과 도서관의 체계를 가장 먼저 가르쳤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도서관을 넬레우스에게 전했다. 넬레우스는 스키타스로 가져갔고,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책들을 창고에 내던져 두고 문을 걸어 잠구어 놓았다. 다른 세심한 보관은 하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들을 속국으로 통치

하던 아탈루스 왕이 페르가몬에 도서관을 세우려고 책을 구하고 모은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들은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책들을 숨겼다. 한참 후 습기와 벌레들이 책들을 파먹자, 그 후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책들을 테오스의 아펠리콘(Apellicon, 기원전 100년)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다. 아펠리콘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애서가(philobiblios)였다. 그는 벌레들에 먹혀 손상당한 부분들을 복구하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복사본들도 만들었다. 이것들은 정확하지 않게 보충되어 오류로 가득찬 책들이었다. (...) 문제의 아펠리콘의 복사본들이 나오자, 물론 더 나은 여건에서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연구를 행할 수 있었지만, 책들에 있는 수많은 오류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정도의 개연적인 접근에 그치고 말았다. 여기에는 로마도 한 몫 크게 거들었다. 당시 아테네를 장악하고 있었던 술라(Sulla, 기원전 138- 78년)는 아펠리콘이 죽자 곧바로 도서관을 전리품으로 차지했다. 로마로 옮겨진 도서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였던 튀라니온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그는 도서관에서 도서들을 교정하고 고쳤다. 몇몇 도서 상인들도 필사가를 고용했다. 그들은 수준이 낮은 필사가들이었다. 필사본의 대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책을 팔기 위해 문헌을 필사할 때 일어나곤 했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¹⁾

문헌학적으로 주목해야 대목은 책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대조하지 않았다(οὐκ ἀντιβάλλοντες)는 언명이다. 문헌 대조에 입각한 문헌 교정이 문헌학의 핵심인데, 스트라보의 전언은 바로 이런 작업이 기원전 1세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현대의 서양고전문헌학이 기술적으로 더 엄격한 체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하지만 그 작업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서양고전문헌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누구든

1) 스트라보(Strabo), 『지리서(Strabonis Geographica)』 제13권 1장 54절. 이 번역은 나의 것이다.

문헌 대조와 문헌 교정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학자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의 문헌 작업이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다. 이 글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행해진 문헌 작업의 실제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발전한 문헌학의 발전 과정과 그 특징들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옥시링쿠스 문헌들을 소개하겠다.

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건립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에 착수해서 2세기에 완공되었다. 도서관의 건립을 착수한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Soter 기원전 367- 282), 완공한 이는 그의 후계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Philadelphus 기원전 308-246)였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²⁾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도 학문과 학자를 존중했던 전통을 이어받고 모방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1대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테오프라스토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다. 하지만 테오프라스토스는 아테네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데, 기원전 297년에 테오프라스토스의 제자였던 팔레론 출신의 데메트리오스가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오게 되고,

2) 참조. R. Pfeiffer, *Ibid.* pp. 87-104.

여기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된다.³⁾ 데메트리오스는 왕과 세 번째 부인이었던 에우리디케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자문과 스승으로 활약했지만, 왕은 네 번째 부인이었던 베레니케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이 아들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사적으로 데메트리오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참조. Diog. Laert. 5권 78).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건립이 시작된 것은 프톨레마이우스 1세부터이다(참조. Plut. Epicurus, 13: Πτολεμαῖος ὁ πρῶτος συναγαγὼν τὸ μουσεῖον). ‘무세이온’이라 불리는 신전은 무사 여신을 모시는 곳으로 세워졌고, 아테네에 세워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Academia)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뤼케이온을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 불리는 곳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궁 밖에 위치한 세라페이온이라는 지역에 지은 두 번째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에서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학술인 서양고전 문헌학⁴⁾을 시작한 사람은 코스의 필리타스(Philitas, 기원전 340-285

3)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훈(2009)과 우상혁(2008, 2009, 2015)을 참조하라. 이 글들은 『70인역』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계를 추적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과 그 번역의 교회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추적하는 것들이다.

4) 서양고전문헌학은 서양 고대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한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학술로 자리잡기 시작해서, 중세의 서양고전문헌학의 시기, 르네상스에서 근세로 이어지는 서양고전문헌학의 시기, 19세기 독일 서양고전문헌학의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서양고전문헌학의 시기로 이어져 내려온 학술이다. 긴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에 대한 연구도 많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시기의 서양고전문헌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파이퍼의 연구(R. Pfeiffe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196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호메로스 시대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서양고전문헌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학술로 정초되고 있어서 로마로 수용되어 가는지 추적한 것이다. 중세의 서양고전문헌학은 레이놀즈와 윌슨이 지은 책이 유명하다(L. D. Reynolds, and N.G. Wilson, *Scribes and Scholars: A Guide to the Transmission of Greek and*

년)였다.⁵⁾ ‘작가이면서 학자’⁶⁾라는 칭호를 얻는 필리타스는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휘 풀이 작업을 시도했다. 그의 제자들로는 테오크리스토스(Theocritos, 기원전 300-260년?)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3대 관장을 지낸 칼리마코스를 들 수 있다. 필리타스가 작업한 어휘 풀이 작업은 『아탁타(Ἀτακτα Γλωσσαι)』책으로 묶이었고, 지금은 단편들만 남아 있는데, 요즘의 ‘단상(Miscellanea)’ 글쓰기 양식으로 작업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필리타스는 호메로스의 어휘들을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무세이온의 운영 주체가 철학자들이 아니라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문헌학자들’⁷⁾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시작을 본격적으로 연 사람이 제노도투스(Zenodotus, 기원전 330년-기원전 260년)였다. 에페소스

Latin Literature (4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이 책은 서양고전문헌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술된 것으로 문헌의 전송 방식과 필사본의 판독에 매우 요긴한 도움을 제공한다. 르세상스 시대 이후부터 18세기까지 발전해 온 서양고전문헌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파이퍼의 저술이 중요하다(R. Pfeiffe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Clarendon Press, 1976)).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인문정신의 역사> 정기문 번역, 도서출판 길, 2006)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다. 서양고전문헌학이 19세기 말에 일본과 중국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정섭, 「국학과 한학의 접점으로서의 문헌학 - 하가 야이치(芳賀矢一)와 량치차오(梁啟超)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76 (2016), pp. 239-262)가 참조할 만하다. 서양에서 전개된 서양고전문헌학과 동양고전문헌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허니의 연구가 중요하다(D. B. Honey, *Incense at the altar: Pioneering Sinologists and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Chinese Philology*, in *American Oriental Series Vol. 8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2001): 최정섭 역, 『제단의 향』(과주: 글향아리, 2018)). 서양고전문헌학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해외 연구로는 웨스트의 저술(M.L. West, *Textual Criticism and Editorial Technique: Applicable to Greek and Latin Texts* (Stuttgart: Teubner, 1973))과 국내 연구에는 즐고, 서양고전문헌학의 방법론: 문헌계보도, 편집, 번역, 주해를 중심으로, 『규장각』 32(2008), pp. 257-282를 들 수 있다.

5) 참조. R. Pfeiffer, *Ibid.* pp. 88-94.

6) *Strabonis Geographica* XIV 657, ποιητής ἄμα καὶ κριτικός

7) 참조, Callimachos. *Fr.* 191, φιλόλογοι

(Ephesus) 출신의 제노도토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초대 관장이었고, 명실상부한 문헌학자(διορθωτής)였다.⁸⁾ 텍스트의 교정자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διορθωτής라는 칭호를 제노도토스가 부여받게 된 것은, 그가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수록한 문헌들을 모아서 대조하고,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이 하듯이 텍스트를 교정하고 편집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일리아스』 1권의 초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2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 중인데, 먼저 해당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μῆνιν ἄειδε θεὰ Πηληϊάδεω Ἀχιλῆος
 οὐλομένην, ἣ μυρὶ Ἄχαιοις ἄλγε' ἔθηκε,
 πολλὰς δ' ἰφθίμους ψυχὰς(1) Ἄϊδι προΐαψεν
 ἠρώων, αὐτοὺς δὲ ἑλώρια τεῦχε κύνεσσιν
 οἰωνοῖσι τε πᾶσι(2), Διὸς δ' ἐτελείετο βουλή,(3) (Il. 1. 1-5)

(1) ψυχὰς codd. edd.: κεφαλὰς Apollon. Rhod. (2) πᾶσι codd. edd.: δαῖτα Zen. cf. Aesch. Suppl. 800 (3) 4~5 del. Zen. cf. cod. Ven. lin. A. 5.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아카이아인들에게 안겨주었고/그 많은 영웅들의 강인한 목숨을 하데스로 떠나보냈으며,/그들 자신을 온갖 개 떼와 새 떼의 먹이로 만든/ 그 저주받을 것을! (..) 제우스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⁹⁾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뤄진 『일리아스』에 대한 비판 정본의 편집(editio critica)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 비판 주석 각각에 대해서 많은 해명이 요청되지만, 비판 장치 자체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8) 참조. Tzetzes, Prolegomena, Τὰς δὲ ποιητικὰς Ζηνοδοτος καὶ ὕστερον Ἀρίσταρχος διορθώσαντο.
 9) 인용. 이준석, 『일리아스』(아카넷, 2023).

에 충분하므로, 논의를 제노도토스에게 집중하겠다. 그가 문헌학자임을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석서(Scholion) 전통에 따르면, 제노도토스가 4행과 5행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파이퍼(R. Pfeiffer, 1889-1979)는 제노도토스가 삭제해야 한다는 표시로 ‘화살표(obelus: >---<)’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다행히도 아테아니오스(Athenaios I)의 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제노도토스는 4행과 5행을 자신이 참조한 선행 텍스트에서 분명히 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대에 이 두 행을 제노도토스가 지웠다는 언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문헌 전승이 이 두 행을 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제노도토스가 위의 번역에 나오는 ‘온갖’에 해당하는 ‘πᾶσι’ 대신에 ‘잔치’를 뜻하는 ‘δαῖτα’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헌 전승과 다른 간접 인용들은 ‘πᾶσι’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의 편집본들 대부분도 해당 자리를 ‘πᾶσι’로 읽는다. 최근에 출판된 이준석의 『일리아스』도 ‘πᾶσι’로 읽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파이퍼에 따르면, ‘πᾶσι’ 대신에 ‘δαῖτα’ 선택한 혹은 교정한 제노도토스의 독법도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노도토스 이전의 출판되거나 공연된 비극 작품들에서 해당 자리를 “δαῖτα”로 읽은 것들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¹¹⁾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제노도토스의 이 독법이 6대 관장이었던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os, 기원전 220년-143년)에 의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δαῖτα”는 동물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스타르코스는 해당 자리를 “πᾶσι”

10) 참조. R. Pfeiffer, *Ibid.* p. 111.

11) 참조. Aeschylus. *Suppliants*. 800 κυσὶν ... ἔλωρα κάπιχωρίοις/ ὄρνισι δεῖπνα, Euripides. *Ion*. 593: *Hec.* 1078

로 읽고, 이것이 해당 구절의 주요한 독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파이퍼와 마찬가지로 라타츠(Latacz, 2000: 19)는 “δαῖτα”로 입을 것을 제안한다.¹²⁾ 그 근거로 그는 한편으로 “온갖 새들”이라는 언표가 심각한 분위기를 희곡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사람의 시신을 파먹는 새들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ἐλώρια … κύνεσσιν οἱ ἀνοῖσι τε δαῖτα(먹이로 던져주었고 개들에게/ 새들에게는 잔치)”이라는 구문의 구조가 문체적으로 교차 대조(Chiasmus)를 이루고 있어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야기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소수의 입장이지만 라타츠의 제안, 즉 제노도토스의 독법이 더 극적이다. 제우스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의미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제우스의 뜻을 선명하게 조명해 준다. 전장터에서 널브러져 쓰러진 시신들의 광경을 개 떼의 먹잇감으로 새 떼의 잔칫상으로 묘사한 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이 오히려 드러난다. 그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과 신의 뜻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이 살아서는 사람의 것인 양 보이지만, 적어도 죽어서는 사람의 것이 아닌 자연의 것, 특히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대목이기에 그렇다. 사람의 시신을 개와 새의 먹이와 잔칫감으로 내던진 인간들의 불경함은 이와 같은 장면 묘사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우스는 진노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통해서 표출되도록 말이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제우스의 진노는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명에서

12) 참조. J. Latacz,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1, (Muenchen: Sauer, 2000), p.19.

서로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제노도토스가 이미 문헌 교정(emendatio)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아리스타르코스가 이에 대한 비판과 다른 독법을 제한했다는 사실이다.¹³⁾ 문헌학적으로 제노도토스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일리아스』 작품을 24권으로 나누어 묶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예컨대 플라톤의 예증에서 살필 수 있듯이, “성벽전투(τειχομαχία) 대목” 식으로 붙렸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접하는 단어들(glossai)를 저술했고, 헤시오도스, 아나크레온, 핀다로스와 같은 작품을 강의했고, 이는 후대의 학자들의 주석서에 반영되었다. 그는 도서관의 책들을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구분했고, 이 구분의 소항목은 다시 저자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분류했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 분류학의 시조가 제노도토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호메로스 서사시를 소위 ‘문헌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최초의 학자로서, 문헌 교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박식함과 상상력이 아닌 도서관에서 수집된 문헌들을 실증 자료로 이용했으며, 또한 문헌 교정에 필요한 편집 기호를 만들어 사용했고, 사전의 효시에 해당하는 단어장을 만든 학자가 제노도토스였다.

칼리마코스(Callimachos, 기원전 330년-기원전 240년)는 제노도토스의 후계자였다.¹⁴⁾ 칼리마코스는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의 목록(pinakes)을 만들었다. 문헌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목록의 구성 양식이다. 이는 이른바 “incipit(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전통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ἐπικὸν δέ τὸ ποίημα, οὗ ἡ ἀρχή (서사시 작품, 이렇게 시작한다)”(frag. 436)를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칼리

13) 참조. R. Pfeiffer, *Ibid.* pp. 105-122.

14) 참조. R. Pfeiffer, *Ibid.* pp.123-151.

마코스는 문헌학자인 동시에 시인이었다. 이는 상상력을 중시하는 문학과 엄밀함을 중시하는 문헌학이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도서관에 모인 문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들과 연구서들이 집필되기 시작된 것은 이 결합 덕분이었다. 그의 많은 저술들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대표적으로 4권으로 된 *Aetia*(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야기), 종교적인 찬가들과 60 편의 경구 등을 들 수 있다. 시인으로서 칼리마코스는 전통적인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그리스 비극이나 희극 작품의 시 정신과 시풍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일단 긴 장편의 서사를 거부한다. 이는 그가 단편 경구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나의 영혼이 반은 도망쳐버렸다. 나의 영혼이 소년들 가운데 누구에게 갔는지? 소년들이여, 그 도망자를 몰래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명령했건만 (...) 변덕스런 에로스여 눈 멀어,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¹⁵⁾

간결하지만,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가 표방한 시 정신의 특징은 자유이다. 요컨대, 진지함, 일관적임, 의미심장함, 성실, 정직 등은 윤리 교과서에게 배웠던 내용이다. 옳은 말인 줄 알지만 무겁고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다. 이러한 진지함, 건건함, 엄숙함에 맞서 천진난만함, 순수함, 유희적임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칼리마코스다. 그의 눈은 아이의 눈이고, 그의 노래는 아이들의 놀이와 닮아 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말하는 세계의 이중성, 위선, 부자연스러운 세계를 폭로하고 그것의 사악함을 폭로하는 시인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노래하고 즐기는 시인이다.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시인은

15) Callimachos, *Epigram* 41.

예컨대 사랑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유로운 태도를 취한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 사랑했던 애인을 향해 모든 것을 걸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의 영혼의 일부는 제멋대로 자유로이 눈 가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자신이 원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자유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다. 삶을 규정하는 핵심어이다. 이를 아는 순간 자유를 사랑라는 인간은 사냥꾼이 된다. 하지만 수렵물에는 관심이 없다. 수렵 행위 자체에 더 흥미가 있을 뿐이다. 칼리마코스의 이와 같은 시 정신은 도덕과 윤리의 계몽과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는 교훈시 전통(*utile*)과는 완전히 다른 재미와 즐거움에 방점을 찍는 유희시 전통(*dulce*)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의 시풍과 시 정신은 특히 로마의 젊은 시인들의 모태로 작용하였다. 카툴루스(*Catullus*), 호라티우스(*Horatius*),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 오비디우스(*Ovidius*)의 스승이자 모범이 칼리마코스였다. 이들 로마 시인들은 그리스 문학을 배워서 라틴 작품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탄생한 시인을 “지성을 갖춘 시인 *poeta doctus*”¹⁶⁾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시조가 칼리마코스였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칼리마코스 시절에 이미 40만 개에 이르는 두루마리를 소장했고, 후대 보고에 따르면, 70만 개의 두루마리를 소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단순히 고대 문헌들을 보관만 하는 장소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은, 엄밀한 비판-검증(*collatio*)을 거쳐 문헌을 교정(*emendatio*)하고, 문헌의 비판 정본(*textus criticus*)을 만

16) 참조. Kl. Reichert, *Gelehrte Dicter. Zur Geschichte eines behaupteten Widerspruchs*, in: *Spielräume des auktorialen Discurses*, hrsg. Von R. Kl. Kray Städtke (Berlin: Akademie, 2003). pp. 39-48.

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다시 주해하고 번역하며 나아가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연구소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 탄생한 책들을 출판하는 일도 관장했던 곳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도서관이 헬레니즘 시대 지식의 산실이자 지혜의 배꼽(omphalos)이었던 셈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은 본래 신전이였다. 스트라보의 보고다.

궁정 안에 무사이온(무사 여신들을 섬기는 사원)이 있는데, 이곳은 회랑과 열람실용 엑스에드라[돌로 된 좌석]와 큰 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집은 무사이온에 속하는 학자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¹⁷⁾

책이 원래 보물이고, 귀한 물건이었다. 도서관은 도서관 관계자와 학자들, 무사이온 학생들과 왕실 관계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은, 적어도 켈리우스에 따르면, “교양 교육을 통해 자유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의 재산(res publica)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공의 보물인 책에 대한 왕실의 관리와 감시는 엄격했다. 아테네 아고라 근처의 로마 제정 시대 도서관 유적지에서 나온 대리석 비문이 그 증거다.

어떤 책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도서관 개관 시간은 첫 번째 호라(오전 7시, 9월 기준)에서 여섯 번째 호라(정오 12시, 9월 기준)까지다.¹⁸⁾

도대체 왜, 왕들은 책의 유출을 막으려 했을까? 물론, 보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꼭 그 때문이었을까? 도서관의 이용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왕들의 이런 조치는 실은 무사(Musa, 巫史) 여신들에게

17) *Strabonis Geographica* 17. 1. 9. 이 번역은 나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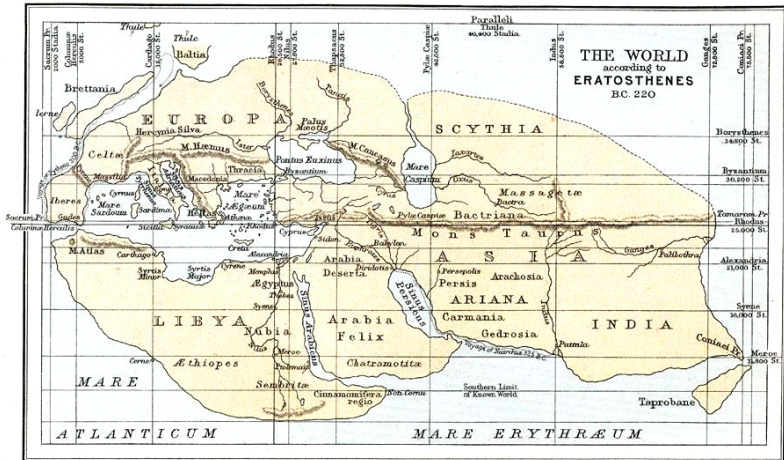
18) 인용. T. Dorandi, *Ibid.* p. 12.

휘브리스(hybris,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원래 자유 시민의 교양을 돌보는 신들이 무사 여신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왕들은 책의 유출은 물론 일반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필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적으로, 책에 담긴 통찰과 그 비판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들도 별수 없었다. 물론, 책은 공동의 보물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에 있어야 옳다. 이런 의미에서, 책에 대한 왕들 나아가 권력자들의 통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또한 그 덕분에 그 통제도 나름 성공했다 하겠다. 하지만, 왕들이 두려워했던 책에 담긴 혹은 책에서 얻은 통찰과 비판의 힘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정작 통제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영리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책에 담긴 지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책이 있는 곳은 도서관이지만, 책이 사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인들이 로마의 지성 시인(poetae docti)들일 것이다. 사실, 『아르고호의 모험(Argonautica)』의 저자인 아폴로니오스(Apollonius, 기원전 295-?)도 칼리마코스의 제자였다. 이 책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인 책들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른바 연구 논문(Peri-: ~에 대하여, ~론)들도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는데¹⁹⁾, 이를 시작한 사람이 칼리마코스였다. 칼리마코스가 문학과 문헌학을 결합시켰다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3대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기원전 274-196년)는 자연학과 문헌학을 연결시켰다.²⁰⁾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연학자인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기원전 287-212년)의 친구였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연구 경향에서 해명된다. 예컨

19) 참조. R. Pfeiffer, *Ibid.* pp. 123-151.

20) 참조. R. Pfeiffer, *Ibid.* pp.152-170.

대 그는 수학에 입각해서 역사와 지리를 계산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에라토스테네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지역들의 거리를 실측하려고 시도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아래와 같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94년에 제작했던 세계 지도를 19세기에 재구한 지도)²¹⁾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지도는 단지 학술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제국의 시간과 공간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었다. 제국의 통치와 지배에 기여하는 시간과 공간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세계 지도는 필수적인 요청 사항이었다. 이 요청은 자연학과 문헌학의 결합을 상징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연구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 이 결

21) 인용. <https://etc.usf.edu/maps/pages/10400/10489/10489.htm>. 검색일자 2025년 9월 29일.

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단지 학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국가가 지식을 본격적으로 관리(Knowledge Management)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자연학의 발전에, 특히 지리학과 박물학 분야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알렉산드로스는 안전한 원정과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 항상 의사와 생물학자와 지리학자와 같은 학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학자들이 수행한 임무는 대개는 정복할 지역의 지리와 종족과 물산의 특성을 미리 탐색하는 일이었다. 예컨대, 알렉산드로스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도착한 시기는 기원전 330년 즈음인데, 메게스테네스(Megasthenes)와 바이톤(Baeton) 등 일군의 학자들이 먼저 히말라야 산맥은 물론 인근의 신장 지역과 내몽골 지역 일대를 미리 수색하고 탐사하였다. 메게스테네스와 바이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친척이었다. 로마의 자연학자 플리니우스(Plinius maior, 기원후 23/24년-기원후 79년)가 전하는 보고이다.

11. 식인(食人)을 하는 스키티아인들이 사는 곳 너머에 있는 이마부스(Imavus) 산의 어느 계곡에는 아바리몬(Abarimon)이라 불리는 종족이 산다. 이 종족은 숲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의 발은 다리 뒤로 향해 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달리며, 야수(野獸)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뛰어다닌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을 돕기 위해 길을 미리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이톤(Baeton)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다. 이들은 다른 하늘의 공기(다른 기후 풍토)를 숨쉬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인근의 왕들은 물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데려올 수가 없었다.²²⁾

22) 참조. Pliny, *Historia Naturalis* 7.2. 이 번역은 나의 것이다.

인용의 “이마부스 산”은 히말라야 산을 가리킨다. 아무튼, 알렉산드스가 건설한 제국은 그의 사후 급속하게 분열되었지만, 그 제국의 세워진 도시들은 모두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 불리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70여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유라시아에 건설되었다.²³⁾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그 중의 하나였다. 박트리아와 간다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라시아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들은 신전, 극장, 학교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도서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지역에서 수집된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는데, 여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들 중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한 사례였다.

특히 국가의 운영과 제국의 통치를 위해 도서관의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 사례로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팔라티누스 도서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도서관은 로마 제국과 지중해 세계의 정보와 지식을 관리하는 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²⁴⁾ 사실, 팔라티누스 도서관은 아우구스투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모방해서 설립한 곳이었다. 그가 이 도서관을 설립한 이유는 로마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국의 수월한 통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제국의 지식 관리를 위해 설립된 이 도서관의 초대 관장은 바로(Marcus Terentius Varro, 기원전 116년-기원전 27년)였다. 이 도서관은 로마 제국의 발전과 존속에 필요한 경험, 기술과 지식을 수집하고 정비하는

23) 참조. Plutarchos,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5. 비교. 조현미,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문명의 전파, (살림, 2004), p 91.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와 도시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설이 없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들이 유라시아 전역에 건설된 것은 사실이다.

24) 참조. T. Keith Dix, “Public libraries” in ancient Rome: Ideology and Reality, in: *Libraries & Culture* 29-3 (1994), pp 282-296.

곳으로, 제국의 지배와 통치에 요청되는 소위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심지였다. 이 도서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원과 물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보고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 도서관에 수집된 책들과 자료 덕분이었다. 예컨대, 『변신 이야기』 3권에는 개들의 다양한 품종들이 열거된다. 오비디우스는 말한다.

“그는 망설이고 있다가 개 떼의 눈에 띄었다. 먼저 멜람푸스와 / 영리한 이크노바테스가 짊어대며 신호를 보냈는데, / 스파르테 품종이었다. 이어서 다른 개들이 바람보다 더 빨리/돌진해 왔으니, 팜파고스, 도르케우스, 오리바소스, / 이들은 모두 아르카디아 산이었다. /탄탄한 베브로포노스, 사나운 테론, 라일랍스, / 발빠른 프테넬라스, 냄새 잘 맡는 야그래, / 얼마 전에 멧돼지에게 찢긴 적인 있는 거친 휠라이우스, / 아버지가 늑대인 라페, 양 떼를 지니는 포이메니스, /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하르퀴이아, / 옆구리가 날씬한 시퀴온 산 라돈, / 드로마스, 카나케, 스택테, 티그리스, 알케, / 털이 눈처럼 흰 래우콘, 검은 털의 아스볼로스, / 힘이 질푼인 라콘, 달리기에 능한 아엘로, 토오스/ 날랜 루키스케와 그 오라비인 퀴프리우스, 흰 반점이 있는 / 하르팔로스, 멜라네오스, 털이 거친 라크네, 덕테 산의 / 아버지와 라코니케 산 어미에게서 태어난 라브로스와 아르기오두스, / 날카롭게 짊어대는 활락토르가 곧 그들이다. /그 밖에 다른 개들의 이름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²⁵⁾

이와 같은 개들의 품종은 오비디우스가 실은 팔라티누스 도서관에 수집된 물산 자료나 가축 일반을 정리한 문헌이나 개들의 품종을 다루는 다른 문헌을 참조할 수 있었기에 작품에 열거될 수 있었던 개들의 이름이었다. 오비디우스는 팔라티누스 도서관의 2대 관장인 휘기누스의 제

25) 오비디우스(Ovidius), 『변신이야기(Metamorphoses)』 제3권 206-224행.

자였다.²⁶⁾ 오비디우스도 도서관의 혜택을 많이 본 시인이었다. 사실, 팔리티노스에 수집된 문헌들의 대부분이 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출판된 것들이라면 점을 감안하면, 오비디우스가 참조했던 개들의 목록도 어쩌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정리된 문헌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비디우스의 스승이었던 휘기누스(Gaius Julius Hyginus, 기원전 64 - 서기17년)의 『이야기들(*Fabulae*)』²⁷⁾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6대 관장인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os, 기원전 217-145년)의 제자였던 아테네 출신의 아폴로도로스(Apollodorus, 기원전 180-119년)가 지은 신화 사전인 『도서관(*Bibliotheca*)』²⁸⁾를 참조해서 지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비잔티움의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가 에라토스테네스의 뒤를 잇는다.²⁹⁾ 하지만, 그는 시인도 자연학자도 아니었다. 문헌학의 관점에서 그는 순수한 문헌학자였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들에 대한 이른바 비판 정본을 만들었다. 그는 정본 작업을 위해서 교정 부호, 마침표, 악센트 표기를 이용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뤄진 문헌 편집과 문헌 편집 작업의 정점을 찍은 학자는 단연코 사모트라케 출신의 아리스타르코스였다.³⁰⁾ 그는 주해(ὑπομνήματα)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학자였다. 호메로스에서부터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에 이르는 작가들에 대한 학습용 주해서들과 전문적인 단행본들을 저술하였다. *Suda*에 따르면, 약 800여 권의 책을 저술

26) 참조. 수에토니우스, 『로마의 문법학자들』, 제20장.

27) 참조. HYGINUS, FABULAE 1-49 - Theoi Classical Texts Library. 검색일자 2024년 9월 29일.

28) 참조. Apollodorus, Library, book 1, chapter 1, section 1 (tufts.edu). 검색일자 2025년 9월 29일.

29) 참조. R. Pfeiffer, *Ibid.* pp. 171-209.

30) 참조. R. Pfeiffer, *Ibid.* pp. 210-233.

했다고 한다. 그에 의해서 산문 문헌에 대한 주해도 최초로 시도되었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역사서들이 대상 문헌들이었다. 문헌학과 소위 “해석학”의 본격적인 결합을 시도한 학자가 아리스타르코스였다. 신플라톤 철학자로 알려진 포리퓌리오스는, 아리스타르코스의 해석 방식을 “Ομηρον ἔξ Ὀμήρου σαφηνίζειν”으로 전한다.³¹⁾ “호메로스로 호메로스를 풀이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방식이 되었지만,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일리아스』 1권 5행의 “οἰωνοῖσι τε πᾶσι” (모든 새들에게)를 제안하면서 “δαῖτα”(잔치음식)대신에 “πᾶσι”(모두에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해명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δαῖς”(잔치음식)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는 동물의 먹이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을 통해서 아리스타르코스는 제노도토스에게 확실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δαῖτα”(잔치음식)는 아테나이오스가 “δαῖτα”(잔치음식)를 전하는 『일리아스』 문헌을 인용을 남긴 작은 단편³²⁾(참고, epit. I 12 F) 이외에 그 이후의 문헌 전승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테나이오스가 전하는 단편은 아래와 같다.

30 ἐπὶ μόνω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δαῖτα (Eust. p. 19, 45: δαῖτας Ath.) λέγει ὁ ποιητής ἐπὶ δὲ θηρίων οὐκ ἔτι. ἀγνοῶν δὲ ταύτης τῆς φωνῆς τὴν δύναμιν Ζηνόδοτος ἐν τῇ κατ’αὐτὸν ἐκδόσει γράφει. (αὐτὸς οὐκ -δαῖτα) (...)

30. δαῖτα는 사람에게만 사용된다. 호메로스는 짐승들에게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에 제노도토스는 자신이 편집한 텍스트에서 이렇게 <그것들을-잔치음식>으로 쓴다. (...)³³⁾

31) 참조. R. Pfeiffer, *Ibid.* p. 226.

32) 참조. Athenaios, *epitome* I. 12 F.

33) 이 번역은 나의 것이다.

이 단편은 아리스타르코스의 독법을 추정하는 글로, 제노도토스를 반박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제노도토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덕분에 제노도토스가 해당 자리를 “δαῖτα”(잔치음식)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을 통해서 아리스타르코스는 문헌학의 권좌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계도 맞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해석과 주해 방식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였고 페르가몬 학파의 주장이었던 말로스 출신의 크라테스(Krates, 기원전 2세기)였다.³⁴⁾ 특히,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비유 표현들에 대해서 크라테스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입장에 반대했다. 크라테스는 예를 들면 “천둥 번개의 제우스”라는 표현은 자연 현상의 풍유(allegoria)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크라테스와 같은 반대자 혹은 적대자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아리스타르코스를 기점으로 그 학문 전통은 더 이상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쇠락하고 만다. 아마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몰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아리스타르코스의 제자들은 서부 이탈리아와 동부 터키 지역으로 흩어지고 만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화재로 소실된 시기는 서기 270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로마의 작가 겔리우스(Aulus Gellius, 기원후 130-180)가 전하는 보고이다.

누구인가? 최초로 공공 독서를 위해 책을 제공한 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책이 페르시아 전쟁 전까지 아테네의 공공 도서관에 있었는가? 교양 교육을 통해 아테네인을 자유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책을 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공한 이는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Pisistratus, 기원전 605-527)라고 전해온다. 이어 아테네인들 자신이 열의를 가지

34) 참조. R. Pfeiffer, *Ibid.* pp.234-251.

고 [도서관을] 풍부하게 가꾸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도시를 장악하고 성채를 제외한 나머지 전 도시를 불 지르고 나서, 이 책들을 페르시아로 약탈해 갔다. 수 세기 후,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을 니카노르라 불리우는 셀레우코스 왕이 아테네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후 많은 책이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수집되기도 했고, 70인 역 성서가 거의 수 천 권에 될 정도로 구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전쟁 중, 나라가 약탈당하는 중에 군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계획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보조 군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책들은 불태워졌다.”³⁵⁾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에 대한 겔리우스의 보고는 신중하고 읽어야 한다. 일단, 기원전 6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100년에 걸친 도서관의 역사가 몇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 사건이 그것이다. 기원전 47년 카이사르(기원전 100-44)가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공격했을 때에 도서관이 불타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오해다. 도서관은 항구 근처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불탄 것들은 수출용으로 항구 근처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파피루스였기 때문이다. 물론, 카이사르도 도서관에 불을 지를 정도로 야만적이지 않았다. 이 도서관이 실제로 소실된 시기는 서기 270년 정도로 추정된다. 필리타스의 건의로 서기 4세기 말에 처음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대략 200여 년에 걸쳐 찬란한 명성과 학술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번성하였다. 도서관을 새로운 시(詩)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지중해 지역의 문명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

35) 겔리우스(Gellius), 『아티카의 방들(*Noctes Atticae*)』 제7권 17장.

아를 당시 그리스의 문화의 배꼽인 아테네 도시를 뛰어넘는 도시로, 즉 지중해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작업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문헌을 대규모로 수집하였고, 체계적으로 분류했으며, 소위 “편집”개념에 입각해서 텍스트를 다루었다. 나중에 지중해 서쪽 지역인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 문헌학은 페르가몬의 학파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제노도토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아리스타르코스에 의해서 완성된 그들의 학풍과 학문 방법은 큰 변화 없이 로마 제국으로 계승되었다. 그 전거는 아래와 같다.

프로부스는 이들 책들을 다시 읽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열망에 휩싸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책을 읽는 것이 존경과 유익한 일이 아니라 멸시당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이 마음먹은 바를 충실하게 실천에 옮겼다. 그는 많은 사본(寫本)들을 수집했고, 이 사본들을 비교-교정했으며 비판 장치를 덧붙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로지 문헌 다루는 이 일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 저술은 거의 출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출판을 했다 해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술한 소책자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가 조사하고 관찰해서 수집하고 정리한 고어(古語) 자료집을 남기었는데, 이 자료집은 마치 나무로 가득 찬 숲처럼 고어들로 풍부한 보고(寶庫)이었다.³⁶⁾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 따르면, 프로부스는 ‘사본들(exemplaria)’을 추적하고 모았다. 이는 문헌 추적(*investigatio*) 과정을 말한다. 수에토니우스는 프로부스가 문헌들을 비교-검증(*contracta*)했다고 전한다. 이 비교-검증이 실은 문헌들의 내적 판독(paleography)에 해당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 프로부스가 다른 많은 사본들을 수집했

36) 수에토니우스 『로마의 문법학자들』 제26장.

다는 수에토니우스의 언명이다. 이는 또한 프로부스가 주어진 사본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에 대한 전거는 〈과리사본 7530〉(Paris BnF Lat.7530, fols 28r)에 전하는 프로부스에 대한 기록이다. 기록은 프루부스가 예컨대 화살표(→)전승 문헌이 아니거나 호메로스의 표현이 아님), 당구장 기호(※올바른 전승), 당구장 기호와 화살표(※→) 잘못된 시행) 등의 알렉산드리아 문헌 교정 기호들을 이용해서 엔니우스, 루킬리우스, 역사학자들의 사본들을 교정했다고 전한다. 마치 아리스타르코스가 호메로스를 교정하듯이"라는 언명도 전한다. 프로부스의 사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은 로마로 수용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부스와 같은 문헌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은 중세 문헌학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증인이 이시도루스이다. 그의 말이다.

[15] 디플레 페리스트그메네(두 점을 찍어놓은 두겹표). 이는 쌍둥이 점이 찍힌 표시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으로 에페소스의 제노도토스가 올바르게 읽게 더해 놓았거나 빼어 버렸거나 자리를 바꿔 놓은 자리를 표시한다.³⁷⁾

3. 옥시링쿠스 문헌들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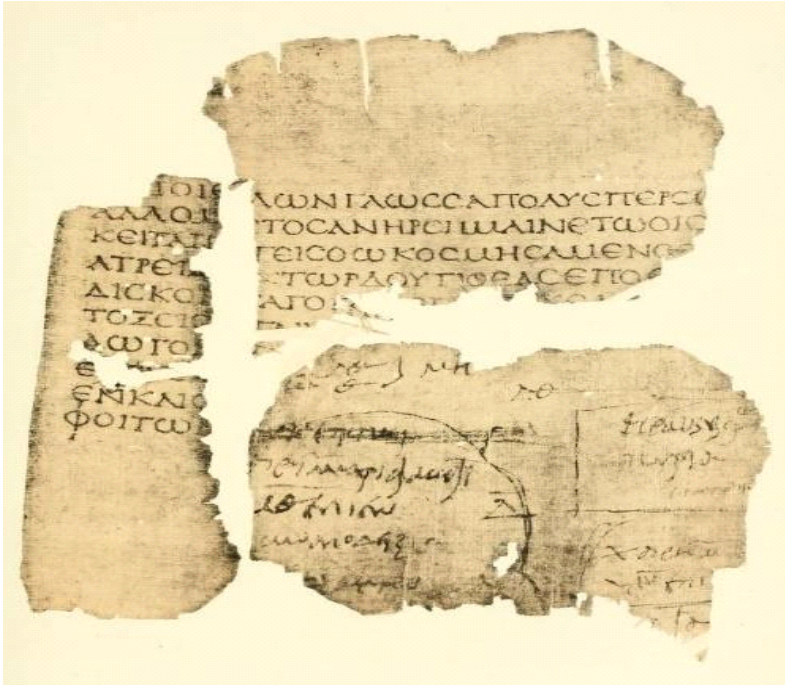
반전은 여기서부터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문헌학에 대한 역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도서관도 문헌학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온

37) 참조. 이시도루스, 『어원론』 제1권 21장. 이 번역은 나의 것이다.

전하게 수행하고 있었음을 실증하는 문헌들이 이집트의 옥시링쿠스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1896년-1907년에 이 발굴을 주도한 이들은 그렌펠(Bernard Grenfell)과 헌트(Arthur Hunt)였다. 옥시링쿠스는 라일강 상류 이집트의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현재는 Bahnasa)으로,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다. 이 도시 인근에서 발견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문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손과 후계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기원전 3세기)의 학술과 문화와 일반 문서에서부터 로마 제국(기원전 32년~ 서기465년), 비잔티움 제국(기원전 4세기~), 아랍 제국(서기 640년~)의 문헌들을 포괄한다. 대부분의 문서는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 일부는 이집트어(대부분은 콥트어)로 된 것도 있고, 간혹 라틴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문서도 발굴된다.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와 팔라비어로 된 문서도 드물게 발견된다. 이 문서들에 대한 연구는 영국 Oxford 대학의 “THE Oxyrhynchus Papyri”가 주도하고 있다.³⁸⁾ 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판독이 이뤄진 이래로 대략 5000점 정도가 해독되었으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의 1%에서 2%에 해당한다. 대략 50만 점이 넘게 본격적인 판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문서의 대부분은 공적 문서와 사적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문서가 작성된 시기의 사회, 법률, 경제, 문학 그리고 종교와 사유 재산 상황을 알려주는 소중한 역사 사료들이다. 수천점이 넘는 파피루스의 문헌의 대부분은,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90%는 법률, 칙령, 호구조사, 회의록, 공적 답변서, 조세 기록, 법정기록, 임대 문서, 경매 문서, 매매문서, 유언장, 물품 목록, 개인 편지들, 점성술 문서들이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그리스과 헬레니즘 시대의 문헌들이었다. 대표적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P.Oxy 20: II. 2권

38) 참조 <https://oxyrhynchus.web.ox.ac.uk/home>

730-828, P. Oxy. 21: Il. 2. 745-764)과 상고기의 서정시인들인 사포와 알카이오스, 고전기의 시인 핀다로스의 시들의 단편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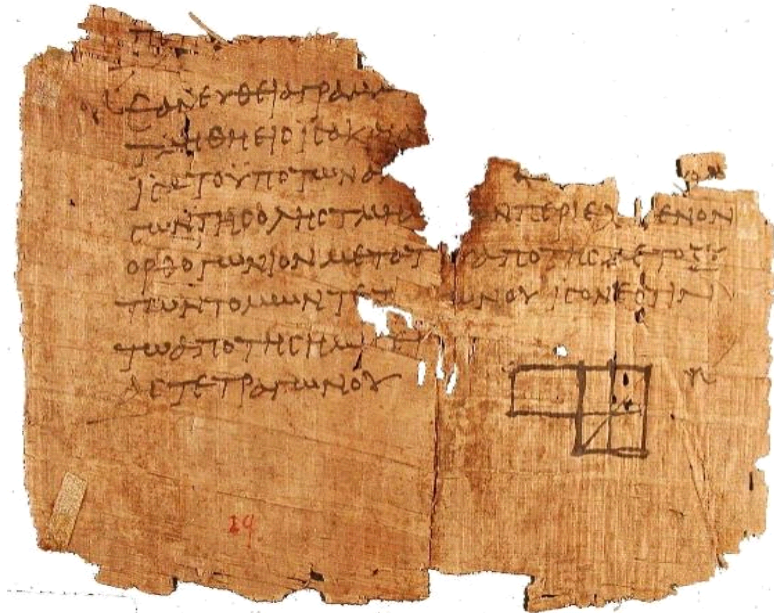
(P. Oxy. 20)³⁹⁾

기원전 3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톤의 『국가』, 『파이돈』, 『고르기아스』의 단편들이 발견되었다. 에포로스 혹은 테오폴포스의 작품으로 혹은 크라티푸스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헬라스의 역사 (Hellenica Oxyrhincia)』⁴⁰⁾가 발견되었는데, 이 작품은 현재 투키디

39) 인용. P. Oxy. 20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검색일자 2025년 9월 29일.

40) 참조. Paul R. McKechnie & Stephen J. Kern, *Hellenica Oxyrhinchia*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8).

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비견된다. 유클리드의 『기하원론』 파편들도 발굴되었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테온이 출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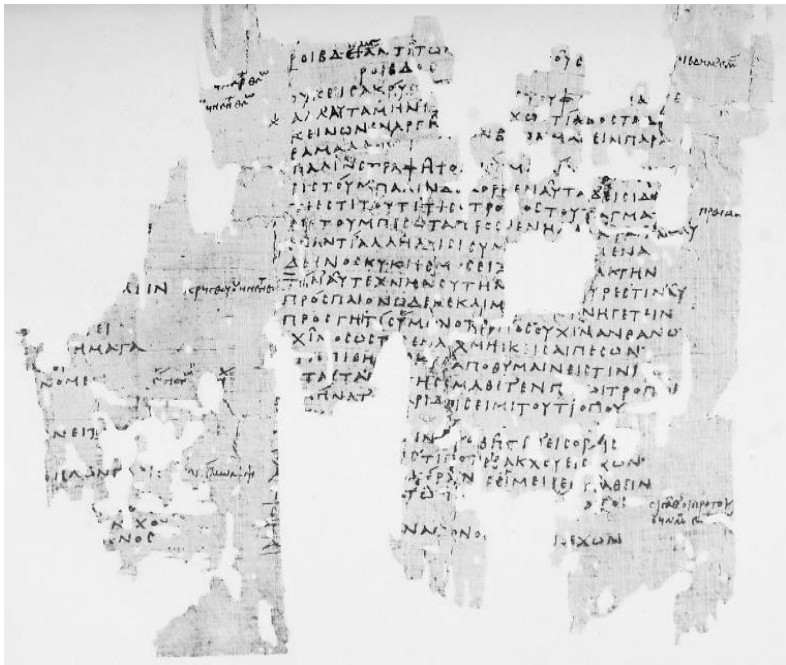


(P. Oxy. 29, 서기 1세기. 현존하는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기하학』 파편)41)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문서는 그리스 드라마 연구자들에게도 홍복(洪福)을 제공했다. 예컨대, 아테네 출신의 신희극 작가인 메난드로스(기원전 342-291년)의 작품들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이는 메난드로스 작품이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구희극 작가들을 제치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또한 아테네는 물론 아테네 외부의 지역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끈

41) 인용. P. Oxy. I 29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검색일자 2025년 9월 29일.

작가였음을 방증하는 사료이다. 소포클레스의 『이크네우테이(Ichneutae)』 작품도 발굴되었는데, 이 작품은 사티로스극(satyrlic Play)으로, 거의 전승되지 않은 사티로스극의 실재와 실체를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문헌이다. 에우리피데스의 『휩시필레(Hypsipyle)』와 소오학파에 속하는 익명의 사티로스가 저술한 에우리피데스의 전기도 발굴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이크네우타이』 96-138)⁴²⁾

옥시링쿠스에서는 그리스도교 문서들도 대량 발굴되었는데, 외경에

42) 인용. P.Oxy. IX 1174 col. iv - v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검색일자 2025년 9월 29일.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헬레니즘 시대에 서양고전문헌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폈다. 이 살핌을 통해서 지금-여기(hic-nunc), 현대의 고전문헌학의 핵심적인 방법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때-거기(ibi-tunc)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발견되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고전문헌학의 방법과 체계는 당연히 훨씬 정밀해지고 복잡하게 발전한다. 이를테면, 디지털 고전문헌학의 발전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헌 구입의 편리함과 자료 검색과 발견의 용이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현대의 고전문헌학이 훨씬 전문적인 학술 체계를 갖춘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거기에서 활동하던 고전문헌학자들이 가졌던 고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어쩌면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의 그것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치열했을 지도 모른다. 물론, 그때-거기의 고전문헌학자들이 그랬듯이, 옛날 텍스트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원전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신조는 여기-지금의 고전문헌학자들도 지금도 금과옥조와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여기의 고전문헌학자들은 학술적인 전문성을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 철칙에 오히려 간혀버린 형국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그때-거기의 문헌학자들과 여기-지금의 현대 문헌학자들의 사이에 있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거기의 고전문헌학자들은 지금-여기의 문헌학자들처럼, 문헌 복원과 검증에만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때-거기의 고전문헌학자들은 치열한 도전과 경쟁 의식을 가지고 고전을 대했다. 이런 문제 의식은 적어도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

이다.⁴⁴⁾ 요컨대, 칼리마코스가 주도했던 새로운 시 운동은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이 차이는 19세기에 서양 고전문헌학을 강타했던 빌라모비츠와 니체가 벌였던 논쟁⁴⁵⁾의 심금을 뛰 어넘은 담론의 경지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예컨대, 빌라모비츠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양 고전을 복원하고 살리려는 학술적인 엄밀성과 정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옛날 문헌에만 머무르려 했던 고전문헌학자들에 대한 니체의 비판도 나름 타당한 것이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문헌의 근거 없이 함부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문헌에 간혀 있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기 때문

44) 로마 시인들이 그리스 시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대결과 경쟁 의식에 대해서 한 심사자 선생님은 이에 대한 논의가 “다소 강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다. 아울러서, 심사자는 “기존 고전 텍스트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각각의 이본(사본)을 적극적으로 교감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 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심사자의 오독일 수도 있겠다”는 신중한 의견을 밝힌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내가 결론에서 대결과 경쟁 의식을 강조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여러 문헌학자들의 학술 방식들 가운데에서 칼리마코스의 새로운 시 문화 운동이 서양고전학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서양고전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로마 시인들이 그리스 시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모방과 경쟁, 더 나아가 대결 의식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서양 고전을 읽거나 서양고전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 서양 고전을 읽고 서양 고전학을 한국 문화와 역사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한 방법일 것이다. 단적으로, 칼리마코스의 새로운 시 운동은 문헌 검증과 대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 편집의 방법과 원칙에 대한 논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예 사조의 전환을 목표로 삼은 일종의 문화 운동이었다. 이는 문헌학의 기초 방법론이 아니라 한편으로 고전을 어떻게 교육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전을 어떻게 창조할 지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이는 긴 서사 전개를 중시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전통에서 감정을 짊어 강렬하게 노래로 표현하는 새로운 서정시의 발전과 확산을 겨냥한 교육 운동이자 문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 운동의 특징은 적어도 19세기 독일 고전문헌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19세기는 엄밀한 고증에 입각해서 고전의 복원에 치중했던 시기였다.

45) Ul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 *Future Philology*, trans. by G. Postl, B. Babich and H. Schmid, in *Articles and Chapters in Aaemic Book Collection* 3 (2000), pp. 1-33.

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고전문헌학자들의 전문성 추구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니체의 비판에 대해서 서양고전문헌학계의 암묵적인 무시 전략 이외에 제대로 된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니체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그러니까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사점을 그때-거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고전문헌학자들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니체가 서양고전문헌학자들에게 가했던 비판과는 그 논의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무튼,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니체의 비판은 사실 고전을 엄밀히 읽혀 합리적인 교양 시민을 양성을 목표로 삼았던 19세기 독일 고전문헌학은 달리 말하면 짐작은 귀족들의 교육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활약한 고전문헌학자들의 활동에서 주목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자들은 대개 고전 텍스트의 독법과 해석의 문제에도 큰 관심을 두었지만, 고전을 뛰어넘으려는 혹은 옛날 고전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실천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칼리마코스⁴⁶⁾와 같은 고전문헌학자는 옛날 텍스트를 단순하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차원에서 읽고 배우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주어진 고전을 모방(imitatio)이 아니라 경쟁(aemulatio)의 대상으로 대했다. 이는 소위 젊은 시인을 기르고 새로운 시를 만드는 운동(poema novum)을 이어졌는데, 이른바 “지성을 갖춘 시인(poeta doctus)”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⁴⁶⁾ 이 운동은, 니체가 생각했듯이, 옛날 고전에 대한 더 뛰어남과 혹은 더 자유로

46) Alexander Kirichenko, 4. Callimachus Romanus, in *Inventing Origins? Aetiological Thinking in Greek and Roman Antiquity* (Brill, 2021), pp. 65-100.

운 독해와 해석에 대한 논쟁의 심급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운동에서는 주어진 고전과의 전면적인 대결과 경쟁 의식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로마 문학의 경우를 놓고 보면, 새로운 고전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시인이었던 카툴루스나 호라티우스가 같은 젊은 시인들을 그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자들의 활동에서 주목한 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고전을 대하는 도전과 경쟁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고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고전과 치열하게 대결하고 경쟁하는 문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빌라모비츠도 니체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 고전문헌학자들도 대개는 이런 문제 의식을 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화도 중요하지만, 고전에 대한 도전과 대결도 중요하다. 이를 보여준 사례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이었다. 칼리마코스의 새로운 시운동은 주어진 고전에 대해서 도전하고 경쟁하려는 문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고전을 만들고 창조하려는 문화와 문명의 창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칼리마코스가 로마의 시문학을 예비했듯이 말이다. 이는 빌라모비츠도 니체도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나는 넓게는 인문학, 좁게는 고전문헌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고전에 대한 도전과 대결 의식이 서양고전학은 물론 인문학계 전반에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길 희망한다. 새로운 고전과 주어진 고전의 전면적인 대결과 경쟁 이외에 고전문헌학은 물론 인문학의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주어진 고전에서 새로운 고전으로 나아가는 운동에 대해서 숙고할 때일 것이다. 이와 같은 대결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고전도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빛낼 것이다. 새로운 고전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더 자주 소환될 것이기에. 어찌면 그때-거기와 지금-여기는 대결과 경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문은 이런 근본적인 만남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단적으로,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제자가 없었다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학문에 전면적으로 도전했던 철학자였는데, 아무튼, 플라톤의 철학도 역사의 무대에 자주 소환되는 기회도 드물었고, 그 철학도 그렇게 빛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발전한 고전문헌학의 역사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주어진 고전에 대한 새로운 고전으로의 도전과 경쟁이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Athenaios, *epitome I*.

Pliny, *Historia Naturalis*.

Plutarchos,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겔리우스(Gellius), 『아티카의 방들(*Noctes Atticae*)』.

『일리아스』, 이준석 번역(아카넷, 2023).

이시도루스(Isidorus), 『어원론(*Etymologia*)』.

오비디우스(Ovidius), 『변신이야기(*Metamorphoses*)』.

수에토니우스(Suetonius), 『문법학자들에 대하여(*De grammaticis*)』 20: 안재원 편역주, 『로마의 문법학자들』(한길사, 2013).

스트라보(Strabo), 『지리서(*Strabonis Geographica*)』.

[2차 문헌]

D. B. Honey (2001), *Incense at the altar: Pioneering Sinologists and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Chinese Philology*, in *American Oriental Series Vol. 8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최정섭/안재원 번역, 『위대한 중국학자』(파주: 글항아리, 2018).

- T. Dorandi (1997), Tradierung der Texte im Altertum: Buchwesen, in: *Einleitung in die griechische Philologie* (Stuttgart und Leipzig: Teubner).
- T. Keith Dix (1994), "Public libraries" in ancient Rome: Ideology and Reality, in: *Libraries & Culture* 29-3 .
- Alex. Kirichenko (2021), 4. Callimachus Romanus, in *Inventing Origins? Aetiological Thinking in Greek and Roman Antiquity* (Brill, pp. 65-100).
- J. Latacz (2000),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1 (Muenchen: Sauer).
- R. Pfeiffer (1968),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
- _____ (1976),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Clarendon Press); 『인문정신의 역사』, 정기문 번역(도서출판 길, 2006).
- Kl. Reichert, Gelehrte Dicter (2003), Zur Geschichte eines behaupteten Widerspruchs, in: *Spielräume des auktorialen Discurses*, hrsg. Von R. Kl. Kray Städtke (Berlin: Akademie).
- L. D. Reynolds, and N.G. Wilson (2013), *Scribes and Scholars: A Guide to the Transmission of Greek and Latin Literature* (4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 L. West (1973), *Textual Criticism and Editorial Technique: Applicable to Greek and Latin Texts* (Stuttgart: Teubner).
- Ul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f (2000), Future Philology, trans. by G. Postl, B. Babich and H. Schmid, in *Articles and Chapters in Aemeric Book Collection* 3.
- 김정훈 (2009), 『70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바오로딸.
- 안재원 (2008), 「서양고전문헌학의 방법론: 문헌계보도, 편집, 번역, 주해를 중심으로」, 『규장각』 32(2008).
- _____ (2014), 『원천으로 가는길』, 논형.
- 우상혁 (2008), 「칠십인경과 알렉산드리아」, 『신학지평』 21.
- _____ (2009), 「아리스테아스 서신과 칠십인경 개정」, 『신학사상』.

_____ (2015), 「헤브라이즘을 넘어 헬레니즘을 향한 도전: 칠십인경 율기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46.

최정섭 (2016), 「국학과 한학의 접점으로서의 문헌학 -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와 량치차오(梁啓超)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76.

[디지털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W_BibliothecaAlexandrina_Inside.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cientlibraryalex.jpg>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Alexandria#/media/File:Alexandria_-_Pompey's_Pillar_-_view_of_ruins.JPG

HYGINUS, FABULAE 1-49 - Theoi Classical Texts Library

Apollodorus, Library, book 1, chapter 1, section 1 (tufts.edu)

<https://etc.usf.edu/maps/pages/10400/10489/10489.htm>

After Grenfell and Hunt | The Oxyrhynchus Papyri.

Grenfell-hunt-1896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File:Egypt relief location map.jpg - Wikipedia

<https://oxyrhynchus.web.ox.ac.uk/home>

Excavations at Oxyrhynchus 1 ca 1903 A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P. Oxy. 20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Paul R. Mckechinie & Stephen J. Kern, *Hellenica Oxyrinchia*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8).

P. Oxy. I 29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P.Oxy. IX 1174 col. iv-v - Oxyrhynchus Papyri - Wikipedia

Papyrus1.JPG (585×840) (wikimedia.org)

On the Philology of Alexandrian Library

Ahn, Jaewon *

This paper offers an account of the history of Alexandrian Libra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ilology conducted there. The Alexandrian Library went beyond its function as a library to collect and correct old songs, stories, writings, and texts, and was a national knowledge management center. The techniques that modern classical philologists still use are basically the methods discovered and developed by, for example, Philitas, Zenodotus, Eratosthenes, and Aristarchus, who were active in the Library of Alexandria. The library was also a school that educated young poets responsible for creating new culture. The spirit of challenge and confrontation that philologists of the Alexandrian Library had towards “given classics” like Homeric epic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moder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is new poetic culture movement led by Callimachus, the third director of the Alexandrian Librar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argues that classical philology, on the one hand, adheres to the line of strict positivism and conservatism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aid to be excessive in regard to the given tradi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n academic tradition that values the spirit of challenge and confrontation with the given classics. As evidence for this, the paper emphasizes the Roman poetic tradition, which attempted to challenge Greek poetry based on the principle of “imitatio et aemulatio”. On

*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E-mail: numeniu@snu.ac.kr

this point,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seeks to create and create new classical culture through challenging and confronting the classics in the education of modern classical philology.

Key Words

Alexandrian library, classical philologist, classical philology, Aristarchos Callimachos, *imitatio et aemulatio*

논문접수일: 2025.12.08. 심사완료일: 2025.12.18. 게재확정일: 2025.12.30.